

**LeaderShip**  
**SPP MasterShip**  
**PartnerShip**



Your Shipbuilding Partner

**SPP Shipbuilding Group**

# 造船速報

## Shipbuilding Information Service

발행 : EAST PEOPLE  
주소 : 서울 강남 역삼 705-9 삼흥 1213호  
전화 : 02)3473-3321 FAX : 02)3473-3324  
e-mail : epeople@unitel.co.kr

**필리핀 수빅조선소**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됩니다.

**한진중공업**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2009. 7. 7. (火) 오늘의 HOT NEWS 제 02-702 호

## 삼성 Shell LNG-FPSO 수주 임박

삼성중공업의 초대형 LNG-FPSO 수주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르웨이 유력 에너지 전문지인 Upstreamonline은 지난 7월 3일자 기사를 통해 Royal Dutch Shell이 발주하는 초대형 LNG-FPSO 입찰에서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Technip 사 컨소시엄이 최종 계약자로 곧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통의 말을 인용 "Royal Dutch Shell은 지난 6월부터 최종 협상을 시작했으며 삼성-Technip 컨소시엄과의 협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다"고 전하면서 "3개 컨소시엄(현대, 대우, 삼성)에 대한 최종 미팅이 5월에 있었으며, 그 이후에 Shell측은 삼성컨소시엄과 단독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Shell측은 "아직 협상과정이 진행중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으며, 다만 정황으로 보아 이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삼성컨소시엄이 본 공사를 수주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본 LNG-FPSO의 발주 물량은 최대 3척(:1척+1척+1척)이며, 최종계약자가 결정되면 이번달말 경 LOI를 체결하고, 이어 계약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전했다.

조만간 확정될 1척은 호주 Prelude가스전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향후 추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2척의 추가 발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중은 Mark III membrane-type을 기본으로 SPB 방식도 옵션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지식경제부 지정 "차세대 용접 생산/설계 기술자 재교육 사업"

### 용접기초교육과정(Ⅰ) 수강생 모집

- 대 상 : 업체 현장 용접 관리자, 설계자, 엔지니어
- 일 정 : 7월 15일 - 7월 16일
- 수강료 : 무료(중식 불포함)
- 장 소 : 대불공단클러스터추진단 강의실

- 문 의 : 한국항공대학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단

☎ 02-300-0455 e-mail : dncclub@hanmail.net

- 수강신청 : 홈페이지 [www.weri.or.kr](http://www.weri.or.kr)

※ 주관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위탁기관 : 조선대학교



Strong protection at all points

## HEMPEL Paints

- Easy application
- Exceptional strength
- Long-term protection
- Value for money

Hempel (Korea) Co. Ltd.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136, SK글로벌빌딩 5층  
601-711

Tel : +82 (051) 647-5854

Fax : +82 (051) 647-6234

Email : sales@kr.hempel.com

Website : www.hempel.co.kr

# 한진중공업, 계약 선종 변경 합의

한진중공업은 기존에 발주물량이던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선주의 요구에 따라 벌커선 4척으로 변경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에 계약이 변경된 선박은 지난 2007년 6월 20일에 수주한 것으로 계약금액은 기존 2,078억 원에서 2,843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종을 변경한 선주는 벨기에의 Delphis사로 3,350TEU급 컨선 4척을 18만dwt급 케이프급 벌커 3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로서는 향후 2년 뒤에 인도될 컨선에 비해 벌커로 전환, 선종 다변화와 위험분산을 주목적으로 이번 선종변경에 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STX, 이병호 신임 사장 선임

STX그룹이 이병호(李秉鎬)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그룹 지주회사인 (주)STX 무역·사업부문 사장으로 신규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미국 유니온대 로스쿨(JD) 국제경제법 박사로서 지난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무역 관련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조선공업협회(現 한국조선협회) 상근부회장, STX팬오션 사외이사,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

## 선사·은행·보험, RG 갈등 확산

부실 조선사의 선수금 반환 후폭풍이 선사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사(은행), RG보험사의 3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부실판정을 받은 조선사의 경우 선박 건조 능력이 없어 선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사는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근거로 장기 반환을 고수하고 있다.

선주와 보험사 사이에 끼어 있는 은행들도 각사의 상황에 따라 선주나 보험사를 옹호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RG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난무하면서 사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

## 삼성중공업, LNG추진여객선 개발

삼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로 움직이는 친환경 여객선을 개발했다.

기존 여객선들은 대부분 중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스웨덴에서 발행되는 여객선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Cruise & Ferry Info'는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여객선을 개발해 달라는 북유럽 선사들의 요청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지난 2년간의 연구 끝에 LNG추진 여객선을 개발했으며, 운항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90% 이상 감축시킨 획기적인 신제품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개발한 LNG추진 여객선은 길이 225m, 폭 31m로 승객 600명과 트레일러 300대를 적재하고 21.5노트(시속 40km)로 운항할 수 있게 고안됐다.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줄였고, 엔진에서 나오는 폐열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해 선박의 운항비용을 최대 38%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 측은 "최근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제한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LNG 추진체를 도입했다"며, "이번 LNG 추진 여객선에 대한 북유럽 선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설명회를 완료했으며, 실제 수주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 - 정정 기사 -

지난 7월 6일자 2면에 보도된 "현대중공업, 16일간 여름휴가" 題下의 기사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하계 휴가비는 5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50%로 바로 잡습니다.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차세대 용접 생산/설계 기술자 재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대 상 : 업체 현장 용접 관리자, 설계자, 엔지니어  
일 정 : 2009. 8. 17(월) ~ 2010. 8월말(약 12개월)  
주 4회(월, 화, 목, 금), 일일 2시간  
수강료 : 1,770,000원/인  
장 소 : 부산 녹산산업단지공단

문 의 : 한국항공대학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단  
☎. 02-300-0455 e-mail : dncclub@kau.ac.kr  
수강신청 : 홈페이지 [www.weri.or.kr](http://www.weri.or.kr)

※ 주관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위탁기관 : 조선대학교



# 상반기 신조선 수주 90% 감소

지난 상반기동안 전 세계 조선업체들의 신조선 수주규모가 281척에 불과, 지난해 같은 기간 2,398척 대비 90% 가까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유력 선박브로커인 N Cotzia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부문 올해 신조선 수주는 단 7척(:1월 6척)에 불과하여 2008년 상반기 360척의 컨선 신조발주가 이루어진 것과 엄청난 차이(:98%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벌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979척 대비 93% 하락한 68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탱커의 경우 전체 신규 수주물량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109척을 수주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630척 대비 70% 감소하였다.

가스 운반선은 단 2척 수주하는 데 그쳐 작년 상반기 68척과 큰 대조를 이뤘다.

한편 상반기 노후선 해체물량은 급증하여 모두 467척이 해체 매각되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3척 대비 4배 가량 크게 늘어난 규모다.■

## 中 조선, 벌커선 수주 5월부터 증가세

최근 중국 조선업체들이 연속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서 6월에만 34척, 570만dwt의 벌커선을 신규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6월 성사된 대량 수주물량에는 江蘇榮盛중공업(Jiangsu Rongsheng)이 5억불의 400K급 VLOC선 4척과, 舟山Jinhaiwan조선이 새 주주인 大中華物流로부터 수주한 20억달러 규모의 벌크선 30척 등이다.

중국의 신규 수주가 증가한 것은, 5월을 기점으로 컨테이너 시장의 침체로 인해 일부 선주들이 선박 인도 연기를 요구하면서 대만국

제조선(:CSBC) 등에서 적극적으로 벌커선 수주를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CSBC의 사장李志城은 내년 조선업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제상황은 하락세이긴 하나 벌커선 관련 신조 문의가 오히려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에 향후 수주 상황 또한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 조선해양학과 교수 현장연수 성황 종료

한국조선협회 산하의 조선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가 주관하는 2009년도 전국 대학 조선.해양관련학과 교수 현장연수사업이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현장 연수사업은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지원하는 조선산업 인적개발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22개의 대학(교) 교수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청장의 강연 외에 한국선급, 해양수산개발원 및 주요 조선소의 관련분야 전문가 강의와 현장 체험실습 등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 개최된 조선.해양공학 교육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에서는 대학생들의 기본소양교육과 전문지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조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수의 목적은 조선.해양 기술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체와 학교간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져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교수들 대부분은 내년에도 이러한 연수사업이 지속되어 조선 현장을 이해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The power behind...  
...profitable drilling operations



Power and productivity  
for a better world™ **ABB**

In the offshore drilling market, profitability is highly dependent on maintaining continuous operations with minimum downtime and off-hire. To achieve this, offshore operators demand the most reliable, high performance power and drives technology. ABB is the leading supplier of electric power systems including drilling and thruster drives to the world's drilling fleet. Based on well-proven ABB technology, we provide fully integrated electrical solutions designed for high performance, easy installation and lifetime serviceability. Visit us at [www.abb.com/marine](http://www.abb.com/marine)

**ABB Marine & Cranes**  
Tel : + 82 51 621 2500  
Fax : + 82 51 621 2918  
E-mail : [j-seung.yoo@kr.abb.com](mailto:j-seung.yoo@kr.abb.com)



# KHI, Dalian조선소 완공 연기

일본 Kawasaki Heavy Industries(:KHI)와 중국 China Ocean Shipping (Group) Company(:Cosco)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Dalian 신규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의 2단계 공사가 연기되었다.

KHI 조선부문 고위관계자는 100만DWT급 제 2도크 건설이 애초에는 2012년 초 완공 예정이었으나 이를 빨라도 2015년까지 늦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KHI는 지난해 말부터 단 1척의 신조 수주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 2도크 건설의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착공된 1단계 공사는 예정대로 올해 말 완공되며, 2백만DWT의 선박 건조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단계 조선소 건설 투자비용은 5억불 수준으로 주력으로 탱커와 대형 벌커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Dalian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조선소의 지분 70%는 중국의 Cosco그룹, 나머지 30%는 KHI가 보유하게 된다.

Cosco와 KHI는 이미 장쑤성 난통시에 합작투자 현지조선소인 Nantong Cosco KHI Ship Engineering(:Nacks)을 설립한 바 있다.

약 10년 전 Nacks조선소 설립 비용은 2억4천만불 수준이었으며, 30만DWT급 및 50만DWT급 도크 2기를 통해 핸디 벌커, VLOC, 5,400TEU급 컨테이너선, 케이프 벌커, 5천대적 자동차운반선 등을 건조선종으로 하고 있다.

Dalian 신규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되면(2015년 이후) Nacks와 Dalian설비의 연간 선박 건조능력은 모두 5백만DW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中 DSIC, 전체 이전 계획

현지소식통에 의하면 대련선박중공업(DSIC)이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재의 대련시내의 조선소 부지에서 장흥도 임항공업구로 사

옥과 공장 전체를 이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대련선박중공업은 장흥도 산업 기지의 약 600만제곱미터의 부지에 개조와 신조설비 이전을 위한 증설 투자비용이 총 200억위안(29억불)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부문과 非선박 부문의 이전을 시작으로 금년에 총 27억위안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조선업계, 주가 상승 추세

최근 중국의 조선관련 주식들의 주가상승율이 각 산업별 수치 중 상승폭이 4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 (CSSC)와 CSSC Jiangnan Heavy Industry Co (CSSC-JNHI),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 Company 등 조선업 주식의 상승폭이 커 지난 1일에는 각각 6.72%, 4.72%, 4.7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선박공업 조정 및 진흥계획>의 발표 이후에도 조선 주가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경기가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승세의 지속기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조선업계, 신조 문의 증가 조짐

일본 주요 6대 조선업체들이 지난 5월에 6건의 신조 관련 문의를 받았으며, 그 중 3건이 벌커로 알려졌다.

일본 조선업계는 올해 1, 2월에 10건 이상의 신조문의가 있었고, 3월 이후 문의가 점차 줄어 다시 한 자리 수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벌커의 신조 관련 문의는 업계에서는 6개월만에 처음이며, 쓰미토모중공업의 경우 지난 8개월만에 처음으로 신조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新興 ENG

30년 전통을 지닌

선박목의장 업계의 산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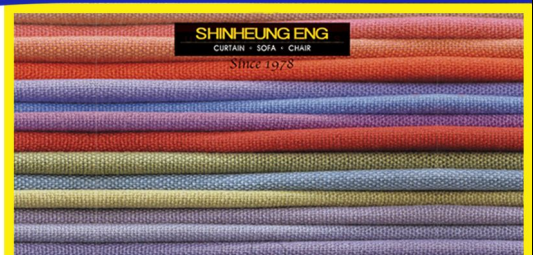


Lloyd's Register

국내 최초

VINYL LEATHER MED Cert 취득

- CURTAIN
- SOFA
- CHAIR
- CARPET
- MATTRESS



TEL) 051-817-6455 . FAX) 051-818-2455

http://www.shinheungeng.co.kr / mail : shinheung@shinheungeng.co.kr

# 폴란드, LNG선 건조 야심

폴란드 조선소가 향후 LNG선 건조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카타르 펀드 QInvest가 폴란드의 Gdynia조선소와 Szczecin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출신 Jan Ruurd de Jonge는 향후 이 조선소에서 고부가가치 최첨단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Q-Max급 초대형 LNG선도 건조할 계획으로 이들 선박을 카타르에서 생산된 LNG를 폴란드 Swinoujscie항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LNG터미널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 Jonge는 Gdynia조선 설비를 이용하여 LNG선을 건조할 생각이며, 현재 LNG선 건조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 조선소들과의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조 수주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Gdynia조선소는 약 2천명, Szczecin조선소는 약 3천명을 다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 Jonge는 Gdynia조선소가 LNG선을 건조한 경험은 없어도 케미컬 탱커 등을 건조한 실적은 풍부하다며, Q-Max급 LNG선의 건조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 STX유럽, 초대형 크루즈 인도

STX유럽의 이름을 내건 이후 2번째 크루즈선이 성공적으로 인도됐다고 밝혔다.

STX유럽은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Saint-Nazaire조선소에서 초대형 크루즈 'MSC Splendida호'의 인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MSC Crociere社가 2005년 말 발주한 것으로 STX유럽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인도한 'MSC Fantasia호'의 자매선이기도 하다.

길이 333m, 폭 38m에 13만8천GT(총톤수) 규모의 MSC Splendida호는 1,637개 객실에 승무원 1,325명을 포함, 총 5,28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약 1조원(5억5천만유로)에 달한다.

선박내부에는 150개의 분수와 수영장을 포함하는 레저 문화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30%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냉방시스템, 성능이 대폭 향상된 수처리 시설 등 혁신적인 친환경공법이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사명을 바꾸고 STX그룹에 본격 편입된 STX유럽은 핀란드와 프랑스의 5개 조선소에서 고부가가치 크루즈선 및 페리선을 생

산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10월말 22만GT 규모의 세계 최대 크루즈선 'Oasis of the seas'호의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핀란드 투르크조선소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매선인 'Allure of the seas'호도 2010년 인도될 예정이다.■

## AP Moller LNG선 2척 인도 연기

AP Moller사는 신조하고 있던 LNG선 2척의 인도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해외소식통에 의하면 대상이 되는 LNG선박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고 있는 165,500입방미터형 2척으로 알려졌다.

현재 LNG운송 화물 부족으로 전체 선대의 약 20%를 차지하는 50척의 LNG선이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도 투입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번째 LNG선은 당초 오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본선은 호주의 에너지 대기업 Woodside석유회사와 2011년 7월부터 중기의 용선계약을 맺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기 용선처는 확보하지 않고 있다.

2번째는 당초 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약처가 없기 때문에 인도할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 IP, 100번째 PSPC 갭 분석 완료

영국선급 Lloyd's Register와 선박·중방식용 도료 선두주자인 International Paint사는 프랑스 Saint-Nazaire조선소에서 100번째 PSPC(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s, 보호도장 성능기준) 갭(:Gap) 분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조선소에서 최초의 PSPC Gap Analysis를 시작한 이래 2년 만에 달성한 성과.

이들 그룹은 이틀에 걸쳐 실시한 PSPC 갭 분석을 통해 PSPC 요구 사항과 관련, 조선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장 작업 방식을 평가했으며, 사전에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이들 그룹이 중국의 신생 조선소와 유럽의 55개 조선소에서 실시한 갭 분석 서비스는 고객의 품질향상 및 해운 안전의 확보로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 및 유럽지역에서의 갭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미주 지역의 갭 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